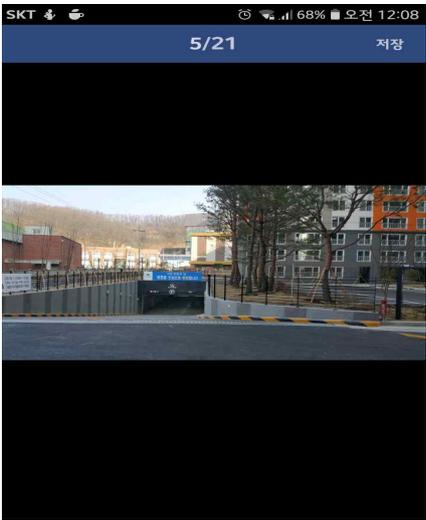


하 자 신 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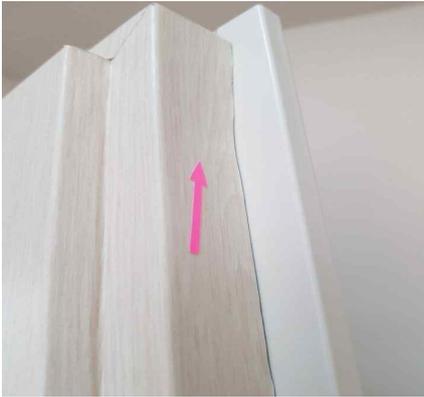
- 0 구 분 : 공용부분/세대내
- 0 작성자 : 102동 1105호
- 0 계약자 : 천효정

사진자료	설명부분	보완요구사항
 <p>항·전망·커뮤니티의 차별화로 단지의 주거가치를 한 단계 높이다! 용산동 최고층의 우수관 조경원과 엘리베이터대공간, 단지 내 여왕 센터가 생활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p>  <p>생활의 쾌적성을 높이고 편리함을 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 위주 쾌적단지, 단지에 남양실업: 삼성위주 배치로 일조량을 확보하고 채광과 통풍을 배려한 자연순환형 버팀골을 설계합니다. ▶ 지중상 스토리드롬, 고품스러운 고벽을 완벽 마감으로 상가의 격을 높인 스토리드롬을 단차와 가차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용산동 최고층/경동천방, 용산동에서 가장 높은 고층 설계로 개방성을 높이고 반면천·수변공원의 조경(관람)부채를 확보합니다. ▶ 탄소세어션, 자재들이 스펀버스를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로써 엘리베이터가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엘리터 테라공원, 예술적 조형물이 어우러진 액티브플레이(아이들이)와 문화적 감성을 자극하는 엘리터 테라공원을 조성합니다. 	<p>어린이 놀이터 샘플과 360도 다르게 설치됨.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p> <p>여름에는 햇볕을 받아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차갑기에 놀이터에 놀 수 없고 여름에는 화상이 야기됨.</p>	<p>카달로그처럼 안전하고, 아이들의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재설치 요망.</p>
	<p>주차장 캐노피 미설치. 여름에는 장마 및 집중호우로 물이 주차장으로 유입 됨.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햇볕이 들지 않는 곳으로 눈이 오면 미끄러움. 주민들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음.</p>	<p>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요망.</p>



명목상의 대피공간으로 마감재가 깨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페인트로 덧칠하여 금이 감. 눈가리기 식으로 마감을 함. 대피공간 좁음. 방화문의 개폐가 안되고 문이 찌그러짐.

제대로된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방화문 교체 요망. 마감재 교체요망.



입주민을 무시하는 처서임. 제대로된 자재를 사용안함.



위 사진은 모델하우스 때의 사진으로 중문을 열었을 때 레일이 끝이남. 하지만 사전점검때는 레일이 끝까지 설치됨.

레일이 모델하우스때처럼 설치되던가, 중문옵션 철회(보상원함. 원래의 중문 미설치로 인테리어 요망) 개별 인테리어 업체에 주문하는게 더 이쁨.



*레일길이 길게 빠짐. 하자임.



욕실의 문턱이 낮고, 문 개폐불량, 욕실 실리콘의 변색, 메지 불량, 바닥타일이 줄눈 불량, 오염, 구배불량임.(공용화장실, 부욕실)

존더 세심한 하자보수 요망. 구배불량이므로 구배 원활히 되도록 재시공 요망.



거실외부창 개폐불량, 거실 샷시 우격심함.

로이유리로 교체, 샷시 재설치 요망



사전점검시 보일러 가동이 되지 않았음에도 결로 발생. 이는 살아가는 평생 결로가 생김.

로이유리 교체 새설치 요망.



주방 창문이 좌우로 흔들려 냉기가 들어옴.

창문 교체 요망.



세탁실, 실외기실, 보일러실이 자녀방 베란다에 위치됨. 공간협소 하고 실외기 가동시 안전보장 되지 않음. 자녀방에 인터넷기기 장비장치 설치되어 있음.

화성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고려하지 않았고, **자녀방의 장비장치를 외부로 빼고 실외기실 설치요망.**

◆화성은 대구 경북에서 우수건설을 자랑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안동시에서는 이를 진행케 함.

안동에서 제일 비싼 단가로 분양을 하고, 5~6년 전 지어진 아파트보다 공간협소, 안전화되지 못한 어린이 놀이터, 대피공간 좁고, 실외기실이 별도 마련되지 않고, 최저의 마감재와 자재(로이유리사용 권고) 사용 함.

이외 실내 도배지 얼룩 심하고, 문 개폐불량은 당연히 설치 되었고, 마감재도 벗겨지고, 유격도 심함.

맘스세이션 미설치됨.

◆104동 일조건 침해. 사전 시; | 물레이성 되지 않음. 있다면 근거자료 제출하시길 바람.

◆ 감리가 있음에서 재역할을 하지 않았고, 시청에는 감리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함.

◆ 사전점검시 시행사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 겨울 우파우려를 핑계로 단수시키고, 보일러 가동을 하지 않음. 정작 화성현장사무소는 따뜻하게 난방하고, 입주민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음.

◆이와같은 문제들의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철회를 요구하고, 안동시에서는 준공허가를 허용하지 않아야함.**